

성명	이민호	수험기간	2023.01.~2024.07.
학교	연세대학교	전공	화학&화공생명공학
키워드	생동차 퇴사 후 합격		

들어가며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번 61회 변리사 시험에 감사하게도 생동차로 합격하게 된 이민호라고 합니다.

처음 시험 준비를 준비할 때도 동차 합격은 정말 비싼 천재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동차 합격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무언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실력이나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퇴사 후 변리사 시험에 도전할지 고민 중이시거나, 경제적 이유 등 여러가지 사유로 간절히 생동차를 해야만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부족하지만 합격 수기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 기득 이상의 수험생 분들 보다 이제 막 1차 진입을 준비하거나, 1차 시험 후 동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지인의 말을 빌려보면, 제가 동차합격을 한다고 해도 사촌 동생한테 제 합격 수기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제 공부방법, 특히 1차 막판과 2차 시험 준비는 과감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여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합격 수기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 합격 수기는 사후적 고찰과 기억 미화 및 보정 등이 반영되어 있는바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입배경】

2021년 1월 입사 후 23월 1월 말에 퇴사하여 변리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있던 건 아니고 지방 근무에 대한 회의감, 정년까지의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퇴사 후 변리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생동차로 합격했던 지인과, 삼시로 합격한 지인이 있었는데 두 분의 공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공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차 공부

점수 80점 [민법-95점, 산업재산권법-80점, 자연과학개론-65점, 커트-76.6점]

【들어가며】

보통의 합격 수기에 1차 시험 공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수험생 시절 많이 아쉬웠습니다. 1차 시험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만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의 전반적인 1차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민법	기본강의			기본서 1회독	
산업재산권법	—				
자연과학	물리 기본 강의		물리 복습	화학 기본 강의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스터디	생활스터디				

	6월	7월	8월	9월	10월
민법	기출 문제 회독			중급강의	객관식 회독
산업재산권법	특허 기본	상표 기본	디보 기본	특허 판례	특허 객관식
		특허 회독	특상 회독	상표 판례	상표 객관식
자연과학	—	생물 기본	지구과학 기본	자율	자율
민사소송법	—				
스터디	생활 스터디, 진도 체크 스터디			—	

	11월	12월	01월	02월
민법	객관식 회독(12월, 02 최종정리 강의)			
산업재산권법	특허 객관식	특허 객관식	특허 기출	특허 기출
	상표 객관식	상표 객관식	상표 기출	상표 기출
	디보 기본	디보 기출	디보 기출	디보 기출
자연과학	생물 기본	지구과학 기본	기출	기출
민사소송법	—			
스터디	생활 스터디+기출 및 모의고사 풀이 스터디			

먼저 저는 60회 시험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연과학보단 법 과목 특히 민법을 압도적으로 잘보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60회 기출의 경우 극악의 난이도를 보인 시험이었으나, 결론적으로 산/민/자 순서로 80/80/55 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었고, 법과목에서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면 자연과학이 40점대가 나와도 합격할 수 있던 시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약점인 자연과학 과목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공부하며 민법을 압도적으로 잘보고, 산업재산권법을 2차에 도움 되게 공부해보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연과학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수험계에서의 중론이었기 때문에 다소 모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민법】 95점

수강강의: 김동진 기본강의, 중급강의, 최종정리강의, 최신판례 강의

☑ 들어가며

1차 공부는 익히기 - 깨지기 - 익히기 - 깨지기 - 익히기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히기란 말 그대로 강의 등을 통해 개념을 새로 배우는 과정이고, 깨지기란 문제풀이를 통해 머리 아프게 개념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쉽게 휘발되지 않는 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민법 기본 강의 (익히기)

1월부터 해서 3월 말까지 2달동안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김동진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했는데, 변리사 수험계에서 강의력은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타이신 것 같습니다. 이후 다른 분들의 강의를 수강할 때 김동진 강사님으로 인해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강의 듣기가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강의력은 최고였습니다.

강의자료로 필기노트를 활용하는데 초반 회독 때 필기노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과목을 처음 배우다보니 판례 문구를 읽었을 때 구조화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반 회독 때 필기노트를 함께 꼼꼼하게 회독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화가 쉬워지고 이를 반복하여 머리에 필기노트 도해가 체화된다면 이후 기본서 회독이 더욱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1-3월 기본 강의 수강하는 동안 최대한 복습하며 강의를 들으려 했으나, 강의 진도에 급급한 경우에는 O,X 제공 자료라도 복습하여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였습니다.

☑ 기출 문제 풀이 (깨지기)

기본 강의 수강 후 민사소송법 기본 사례/강의를 4,5월 수강하는 동안 기본서를 2회독 했습니다. 빠르게 1회독 후, 천천히 1회독 하였습니다. 이후 60회 기출을 풀었는데 65점 정도가 나와 객관식 풀이를 병행해도 되겠다 생각하여 6월부터 10개년 기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6월부터 산재법 기본 강의를 들어야해서 민법 기본서 회독을 꼼꼼하게 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해설이 자세한 고태환 저 10개년 기출문제집을 교재로 선택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해설을 꼼꼼하게 읽으며 6-8월 산재법 기본 강의를 듣는 중에도 최대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민법의 휘발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객관식을 처음 풀 때 정말 엄청 많이 틀립니다. 다만 이 때 지금 실력이 시험장에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말고 내가 어찌 부분에서 약한지, 개념이 전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체크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설을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기본서에 ?로 체크해놓고 이후 중급 강의 때 해당 부분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총 2회독 하고 버렸습니다.

☑ 중급 강의 (익히기)

산재법 기본 강의를 다 마친 후 9월부터 민법 중급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머리 아프게 한 번 깨지고 중급 강의를 들으니 기본 강의 때보다 개념이 훨씬 잘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월 동안 중급 강의를 수강했고, 중급 강의 수강 후에는 필기노트 없이도 회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 객관식 풀이 (깨지기)

기본 강의를 수강한 강사님의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처음 3회독은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이 때도 기본서 회독을 함께 병행했는데, 이를 전에 읽은 기본서 부분을 객관식으로 풀 수 있는 정도로 진도를 맞추어 문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민법은 매일 3-4시간 정도씩 투자했습니다.

12월까지 총 3회독 후 1월부터는 자주 틀리거나 헛갈렸던 부분 위주로 빠르게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최소 5회독 이상은 진행했고, 틀린 부분 위주로 볼 때에도 기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기본서 회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짹돌을 제외하고 전부 회독하며, 개념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격일로 민법 기본서 회독과 객관식 풀이를 번갈아가며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시험 3일 전까지 유지했습니다.

☑ 최종정리강의 (익히기)

12월 말과 시험 1주일 전에 최종정리강의를 2회 수강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강의다 보니 막판 강한 잔상을 위해서 시험 1주 전에 한 번 더 수강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도 머리 아프게 깨진 경험을 한 후 마지막 정리 강의를 들으니, 민법이 정말 잘 정리되었다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 최종 회독

시험 이틀 전부터 객관식 문제집에서 항상 틀리고 헛갈렸던 부분을 기본서에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산재법 끝나고 쉬는 시간에 최대한 빨리 회독했습니다.

【민법】 80점, 특/상/다: 18/6/8

☑ 기본 강의

6월 특허 기본 강의 / 7월 상표 기본 강의 / 8월 디보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특허, 상표의 경우 2차와 연계 강의를 하시는 박지환, 최지환 변리사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2차에서 해당 강사님들의 수업을 듣지는 않았으나, 1차 강의를 2차 내용과 연결지어 설명해주실거란 막연한 기대로 보통 많이 듣는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특허 강의 수강 후 상표 기본 강의를 들으며 특허 회독을 병행했고, 디보 기본 강의 수강 시에는 특,상 기본서 회독을 병행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4,5월에 수강해서인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크게 낯선 부분은 없었으나, 생소한 용어와 판례가 많아 정리가 잘 되는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디보의 경우 8월 정다운 변리사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한 후 10월까지 전혀 보지 못하다가 11월에 객관식 문제를 풀기 전에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 강의를 빠르게 한 번 다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 수강하는 것이 잘 맞고 혼자서 머리가 아프게 1회독 하는 것보다 강사랑 한 번 빠르게 회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공부법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 판례 강의

9월에는 2차 과목 때 특허 상표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여 2차 판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차 기본 강의를 들은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는데, 기본 강의만으로 이해하지 못 했던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상표법은 2차 진입 시에도 중요 판례에 대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던 것이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 거의 잔상이 없을 정도로 2차 시험 대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디만, 사후적으로 고찰해봤을 때 특허 과목의 경우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보다 판례의 위치 설정이 중요한데, 이러한 위치 설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하여 휘발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1차 특허 강의 수강 후 위치 설정이 잘 되어있다면, 특허 역시 2차 판례 강의 수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특허 상표 모두 판례 강의 수강을 한 덕분인지 객관식 문제 풀이 시에 판례형 문제는 많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객관식 및 기출 풀이

10월부터는 특허, 상표 객관식 문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기본 강의를 들은 강사님의 교재를 선택하여 모든 문제를 3회독 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 회독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1월부터는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PDF로 모든 문제를 2회독 한 후 틀리거나 헛갈렸던 문제들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를 지운 후에, 헛갈렸던 문제나 틀렸던 문제만 다시 회독하는 방법으로 2,3회독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막판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푼 것이 부족한 조문 암기 및 책 정리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으로 산재법 점수 획득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 최종정리 강의

저는 최종정리강의를 특허 2개, 상표 3개, 디보 2개를 들을 정도로 산재법 마지막 회독에 애를 먹었습니다.

두꺼운 기본서를 막판 회독으로 가져갈 수 없을 거 같아 얇은 교재를 원했는데, 제 취향에 맞는 교재를 찾고 해당 교재의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조문과 해당 조문에 대한 판례가 함께 정리되어있는 교재를 찾고자 했는데, 기존에 보던 교재가 아닌 새로운 교재다 보니 초

반 정리에 시간 투자가 필요했으나 이후 회독이 빨라져서 어느 정도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한 강의로는 특허: 박지환, 서상철 최종정리강의, 상표: 최지환, 오주이, 김세원 최종정리강의, 디보: 정다운, 김웅 최종정리강의 입니다.

최종 회독 교재는 특허: 서상철 저 코어드릴 조문판례(현 코맷), 상표: 오주이 최종정리자료, 김세원 저 세상표법 조문노트(현 코맷), 디보: 정다운 최종정리자료, 김웅 최종정리자료를 번갈아가며 회독했습니다.

서상철, 김세원 저 코맷 교재는 단순한 조문집이 아니라 해당 조문 별로 1차에서 중요한 판례가 함께 정리 되어있어 막판 회독 시 정말 유용했습니다. 기출 지문 대부분이 포함되어있어 별다른 단권화 없이 회독이 간편하여 좋았습니다.

오주이 최종정리자료의 경우 강의 최종 자료 중 유일하게 여러 컬러(시각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을 사용해서 강약조절이 되어있었습니다. 기출 표시 및 중요 판례 문구 혹은 O,X 등에 강조 표시가 다 되어있었다보니 회독 시에 훨씬 도 효율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다운, 김웅 최종정리자료 역시 얇은 분량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조문 암기

1차 산재법에서의 조문 암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판례 강의 수강으로 인해 비교적 늦게 조문 암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조문 문제를 틀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문 공부는 특별한 거 없이 기본 강의 강사님의 조문집을 반복해서 보고, 위에서 말씀드린 최종정리 자료 회독 시 조문 중 객관식 출제가 가능한 모든 포인트에 형광펜을 칠하여 반복적으로 회독했습니다.

61회는 조문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특히, 상표) 이로 인해 평소 모의고사 때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아 아쉬웠습니다. 2차를 위해서는 판례 공부 역시 도움이 되겠으나, 1차를 합격하여야만 2차 시험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기에 조문 공부 역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개론】 65점, 물/화/생/지: 5/7/8/6

저는 자연과학 4과목을 방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방어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이 공부를 소홀히 했다가 보다 전범위를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만 강하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물리

수강 강의: 손용욱 기본 강의 / 김동훈 기본 강의 / 이준석 최종정리강의

물리의 경우 1월부터 기본강의를 수강했으나, 이후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 보니, 9월에 역학 이후부터 다시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 강의 교재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 반복해서 풀었고, 1월부터는 기출문제 중 비교적 쉬운 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쉬운 문제만 풀었고 5개를 맞췄습니다.

☑ 화학

수강 강의: 박인규 기본 강의 / 서형석 전공자용 통합강의, 최종정리강의

화학의 경우 4—5월 기본 강의를 수강했으나, 너무 쉬운 강의를 날림으로 들어 수험적인 정리가 전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전공자용 강의를 들었고, 해당 강의에서 나눠주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전공이 화학이다 보니, 개념적인 문제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반응속도 등의 계산 문제는 많은 공부를 해야 시험에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 위주로 문제를 풀고 계산 문제는 가끔씩만 풀면서 시험장에서의 저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61회 시험의 경우,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7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전공자 분들의 경우에도 화학은 6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생물

수강 강의: 최성윤 기본 강의, 5개 맞추기 강의, 최종정리 강의 / 노용관 적중모의고사

생물은 최성윤 기본 강의를 2번 듣고, 최성윤 5개 맞추기 1회, 최성윤 최종정리강의 1회를 수강할 정도로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생물을 스스로 회독하기에는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려워, 반복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핵심 강의부터는 10개년 기출 중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 위주로 듣고, 나머지 단원은 최종정리강의에서 설명해주는 부분만 가볍게 봤습니다.

10개년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기출변형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61회 시험의 경우 생물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 8개를 맞췄습니다.

☑ 지구과학

수강 강의: 박준희 기본강의, 핵심정리강의 / 이민경 핵심체크강의, 최종정리강의 / 노용관 적중모의고사

지구과학의 경우도 박준희 기본강의 1회, 박준희 핵심 정리 강의 1회, 이민경 핵심 체크 강의 1회, 이민경 최종정리 강의 1회 수강했습니다. 지구과학 베이스가 전혀 없던 터라, 지구과학의 사소한 내용도 잘 몰랐던 터라 생물과 마찬가지로 기본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며 공부했고, 기본 강의 강사님과 다른 강사님의 핵심 체크 강의 수강 후, 핵심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0개년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풀었고, 노용관 5개년 기출 변형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10개년 기출 빈도가 높은 부분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회독하지 않았습니다.

61회의 경우 지구과학이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었으나 방어적으로 6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혼자서 공부하는 걸 쓸쓸해 하는 편이라, 같이 밥을 먹는 생활스터디를 수험 기간 동안 몇 달을 제외하고 거의 함께 했습니다.

시험 3달 전인 12월 초부터는 10개년 기출 및 모의고사 2회 정도를 시험 시간에 맞춰 함께 푸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위에서 진행한 기출 스터디를 통해 기출 회독 및 시간관리 연습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모의고사】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푼 편이었는데, 3번은 직접 학원이나 학교에서 나가 시험을 응시했고, 2회는 스터디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빛 1차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서 11월, 12월에 공부 텐션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12월 말 합격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아 충격을 받고 1,2월에 공부에 좀 더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하다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차 공부

【들어가며】

2차 시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공부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민사소송법	강의	기본강의	사례강의	-	병합소송 특강	최종 정리
	GS	-	실전 A (현) 실전 A (온)	기초 GS (온)	실전 B (현) 실전 B (온)	모의고사 3회
	스터디	-	암기	암기+사례	암기+사례	암기+사례
특허법	강의	-	-	-	최종 정리 (현)	최종 정리 (온)
	GS	기초 GS+ (현)	-	실전 B (현) 실전 A (현)		모의고사 3회
	스터디	총알 암기스터디	총알 암기스터디	-	총알 암기	
상표법	강의	-	판례 및 사례	판례 5개년 특강	Level up	-
	GS	기초 GS (현)	-	실전 GS (현)	콜라보 GS (현) 실전 B (온)	모의고사 3회
	스터디	-	판례 암기 스터디	판례 암기 스터디	판례 암기 스터디	
저작권법	강의	-	-	기본 강의	-	최종 정리
	GS	-	기초 GS (현)	-	실전 GS (현)	모의고사 3회
	스터디	-	-	전화 암기	전화 암기	-

빨간색 강의의 경우 풀답안을 작성한GS이고, 검은색GS는 목차만 잡은 GS입니다. 모든 GS는 쓰기 후 강평을 수강했습니다. 초반에는 특허 상표를 합쳐서 민소와 비슷하게 공부했고, 갈수록 민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등 기본적으로 민소를 제일 많이 공부했습니다.

【민사소송법】 62점 / 19p 작성

☑ 1차 공부 중 민소 강의 수강

저는 1차 공부할 당시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 사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 때는 민소를 이해했다기 보다는 이창한 강사님의 화려한 개인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기간 민사소송법 강의를 듣는 것의 의의는 산재법 강의 수강 전 절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 산재법 강의 수강 시 도움이 된다. 2차 동차 기간에 민소 기본 사례 강의에 허덕일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도 인 것 같습니다.

☑ 기본 및 사례 강의

1차 시험 직후 어느 정도 합격을 예상하여 3월 정도 휴식 후 바로 2차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1차 때 민소법을 들긴 하였으나 거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 사례 강의를 수강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합격 수기를 읽어보았을 때 기득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은 수가 동차 때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의 압도적인 분량으로 인해 동차를 포기한 것을 확인했고, 기본 사례 강의를 빨리 듣고 실전 GS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얕지만 비교적 판례가 많이 실려있는 객준형 변리사님의 윤곽 책을 기본서로 정하였고, 3월에는 기본 강의를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이 때는 기본 강의를 빠르게 듣는데 의의를 두고 기본서 회독을 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4월에는 객준형 변리사님의 사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사례강의를 들으며 어떻게 논점을 추출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GS

4월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 A를 영상으로 듣고 곽준형 변리사님의 실전 A를 목차만 간단히 잡고 강평을 수강하였습니다. 동차생으로서 거의 목차도 잡지 못 하고 소설을 쓰는 게 전부였지만, 최대한 강평을 들으며 어떻게 논점을 추출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책은 보지 않았는데, 이후에도 서술하겠지만 GS에서 목적은 답안을 최대한 내 지식으로 채우는 것에 의미 있다는 조언을 받아 3월 기초 GS 1,2회차 이후에는 모든 GS에서 책을 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 멘탈 이슈로 GS를 쓰다가 탈주한 적도 있었으나, 여러 번 공부했던 부분도 막상 답안으로 작성하려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계기로 암기 및 사례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기초 GS를 수강했습니다. 처음에는 현강으로 들었으나, 핸드북으로 강의를 하고 바로 이걸 GS로 쓰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 온라인으로 전환 후 평일에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6월에는 이창한 강사님 실전 B를 현강으로 듣고, 곽준형 변리사님의 실전 B를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곽준형 변리사님의 실전 B의 경우 주말 전 금요일 새벽에 빠르게 목차를 잡고 강평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최신 판례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판례를 알고 답안을 작성하고 싶어 무리하게 들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 실전 B는 30~90%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등수가 나왔습니다. 등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매주 복권 번호를 맞춰보는 느낌으로 결과랑 점수만 확인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답안지는 초반에는 16p 채우기가 힘들었으나, 마지막 주차에는 18p 정도까지 분량이 늘었습니다. GS에서는 최대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주어진 점수 내에서 목차를 구성하고 분량을 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 GS의 경우 전통적인 중요 논점에 대한 답안 작성이 가능하고, 정석적인 답안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곽준형 변리사님 GS의 경우 논점 추출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수험적인 답안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같습니다.

스터디

저는 민소 스터디 덕분에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소 암기 및 사례 스터디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 암기 스터디

4월 말부터 같은 기본서를 보는 분 3명과 암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중요도	일자	윤곽	페이지	논점
A0	Day 03	33 채권자대위소송	102	중복소제기-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소제기한 경우
A0	Day 03	33 채권자대위소송	102	중복소제기-채무자의 소송 중 대위소가 제기된 경우
A-	Day 03	33 채권자대위소송	103	중복소제기-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중복소제기 해당 여부

위처럼 기본서에 있는 민소 논점을 450개 논점을 정리하여 20일 → 10일 → 6일 → 3일로 점차 회독 주기를 빨리 가져갔습니다. 스터디는 당일 논점 중 랜덤하게 10개를 뽑은 후 2:2로 짝을 지어 5개씩 논점 별 학판검 세트를 말하는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터디 암기에만 책 정리까지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걸렸는데 암기를 하면서 기본서를 회독하고 암기한 것이 GS 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원분들이 다들 암기를 정말 잘하셔서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책을 자주 보고 최대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암기 스터디는 시험 전주까지 진행했습니다. 막판까지 스터디를 진행한 것이 마지막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터디 덕분에 민사소송법 대부분 논점에 대해 정확한 암기를 하지 못 하더라도 해당 논점을 추출하고 키워드를 살려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소법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2) 사례 스터디

5월 말부터는 사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사례 스터디는 경우 밤 11시 정도에 진행해서 해당 스터디 분량 중 한 문제에 대한 풀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월-금 매일 진행을 했는데, 매일 민소법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부족한 쓰기 연습 시간을 더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합 사례집을 크게 6등분 한 후 홀수/짝수로 나눠 문제를 공부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20문제 정도 되는 사례 문제를 공부해야했기에 위 스터디만 해도 4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해서 저녁 시간에는 거의 사례 스터디 문제를 보는데 썼습니다. 사례 문제를 풀며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스터디원분들께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위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거의 사례 문제를 찍어서 외우는 공부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사례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자 암기스터디를 같이 하는 형님과 부탁하여 사례 스터디를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함께 5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풀고 해당 잡은 목차를 스터디원 분께 점검을 받았는데 처음에 기계적으로 잡았던 목차에 스터디원분께 목차가 나오게 된 이유와 해당 논점이 주된 쟁점이 된 이유를 들으니 처음으로 민사소송법 문제를 푼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3) 소결

동차 때는 기본서 or 사례집 or GS 하나만 챙겨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위 3개를 챙겨가는 것이 동차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1회처럼 GS에서 적중하지 못 하고 기본 논점이 주로 나오면 GS만 외운 동차생이 답안을 작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암기와 사례풀이를 병행하면서 이를 점검하는 용도로 GS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암기 스터디와 사례 스터디를 병행하며 최소 8시간 이상 민소법에 투자할 수 있었고, 암기와 사례 스터디의 당일 범위를 별도로 가져가며 두 트랙으로 가져간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허법】 46점 / 18p 작성

☑ 기초 GS+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초 GS +를 수강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추천이 많았고, 역삼에서 생활스터디를 함께 했던 분들이 모두 박형준 기초 GS+를 수강하다보니 암기 스터디의 용이성 등을 위해서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력 등을 떠나서,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동차 생활 변리사 수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배우고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리사 수험은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형준 변리사님의 EQ적 답안과 기본서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 GS+의 가장 큰 장점 전통적인 A급 논점들에 대해 풀답안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막판 7월에도 기초 GS+는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보통의 기초GS는 비교적 짧은 회차로 수업을 진행하여 모든 A급 논점들에 대한 답안 작성이 어려운데, 기초 GS+는 18회차로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실전 GS 전까지 답안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던 점이 좋았습니다.

☑ 실전 GS

박형준 변리사님의 실전 B, 한승준 변리사님 실전 A,B를 수강했습니다.

특허 과목이 3월부터 가장 이해가 어려웠고, 특허가 머리에 동동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서를 자세히 익기 보다는 GS를 보다 많이 쓰면서 이해를 하고자 했고, 5월과 6월 한승준 변리사님의 실전 A, B를 각각 수강했습니다. 실전 A는 풀답안 실전 B는 목차만 잡고 강평을 수강했습니다. 한승준 변리사님께서 실전 GS에서도 판례 등의 설명을 잘해주셔서 특허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 실전 B의 경우 기초GS+에서 작성하지 않은 최신 판례 및 탭텐 판례 위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처음에

는 최신 판례 및 탭텐 판례가 정리되지 않아 지에스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탭텐 판례 강의 수강 후에는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판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답안 작성을 연습해보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동차 분들도 실전에 들어가기 전 탭텐 판례 강의를 듣고 실전 GS 써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몇몇 분들이 동차 시기에 GS를 많이 들은 것이 도움이 됐느냐 질문 주셨었는데 개인적으로 혼자서 책을 깊게 이해하며 회독하는 공부보단 답안 작성을 해보는 것이 머리에 더 각이 잘 되는 편이라 무리해서 GS를 많이 적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 암기

3,4월 박형준 변리사님의 총알 암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5월에는 혼자서 암기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암기 템포가 전혀 오르지 않아 6월부터 새로 암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날짜별로 암기를 진행한 후에 암기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스터디원분께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7월에는 같은 스터디원분과 박형준 바주카포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암기력이 부족해 원문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문제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주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판례를 어느정도 유사하게 지어내는 것이 가능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원문 그대로 암기는 포기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본서와 바주카포를 읽고 키워드를 암기한 것이 실제 시험에서도 도움이 됐습니다.

【상표법】 58.66점/ 19p 작성

☑ GS

1) 대형 GS

김세원 변리사님의 기초 GS - 실전 GS - 콜라보 GS를 수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표법 강사님들 중 김세원 변리사님의 강의가 가장 수험적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월에는 기초 GS를 수강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1차 때 배웠던 판례들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2차에도 연결되는 느낌이다보니 초반에는 쉽게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김세원 변리사님께서 기초 GS에서의 개념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강약조절을 포인트를 알려주시다 보니, 기초 GS 초반에는 상표법 답안 작성이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민소 GS 수강으로 인해 상표 실전 GS를 5월에 수강했는데, 짝수 회차마다 김세원 변리사님께서 질문을 받으러 와주셔서 매 짝수회차마다 김세원 변리사님께 답안지에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2회차 즈음 나름 4월에 판례 암기도 성실히 하고 상표에 자신이 있었는데 실제 문제를 푸니 3p 정도 밖에 작성하지 못 하고 2시간 동안 멍 때리기는 아까워 책에 형광펜 작업을 하는 등 초반에는 답안 작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김세원 변리사님께 상담 드리니, '동차생이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복습 열심히 열심히 하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크게크게 작성하면 된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변리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최대한 전 주 GS를 복습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크게크게 적고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답안 분량도 차츰 늘기 시작했고 7,8회차에서는 16p 정도 답안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콜라보 GS에서도 18p 이상 답안작성을 했으나, 성적이 늘 같은 등수 대를 유지하다보니 김세원 변리사님께 조언을 구하였고, 소형 GS를 추천을 해주셔서 소형 GS에서 직접 첨삭을 받았습니다.

2) 소형 GS

메가에서 강의하시는 오주이 변리사님의 실전 B를 수강했습니다. 소형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내가 그동안 사안포섭이라고 하여 작성한 답안이 그저 문제 옮겨적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안포섭에서는 판례 문구를 하나하나 포섭하는

게 중요한데, 동차 초반 시기에 저는 강사님들의 모범 답안을 보며 '왜 답안에 사실관계만 나열해놓고 있지?' 라는 의문만 품은 채 문제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길 뿐이었습니다.

먼저 합격하신 강사님의 정밀 첨삭을 통하여 판례 문구를 살린 사안포섭 방법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평소보다 판례 문구를 최대한 살려서 꼼꼼하게 포섭 했던 부분이 시험에서 비교적 고득점을 받을 수 있던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 스터디

4월부터 6월까지 상표 판례 암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김세원 변리사님 판례집 중 B+이상만 선별해서 판례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스터디 때는 랜덤하게 판례를 뽑아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판례 암기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는 기초 및 실전 콜라보 GS 암기 스터디 및 정혜진 변리사님 5개년 판례 특강 자료 통암기 스터디 등으로 범위를 넓혀 진행했습니다. 해당 스터디를 통해 상표를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답안지학

답안지학이라는 목차로 수기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지만, 상표법의 경우 민소나 특허에 비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크게 목차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1회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평이었다고 평가되나 개인적으로 시험장에서의 체감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멘탈을 잡고 문제에서 물어본 포인트를 목차로 살려서 답안을 작성하고자 했고, 이 부분이 강사님들의 답안에 적혀진 일부 부논점들을 누락했음에도 나름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포인트 같습니다.

동차생 분들도 남들과는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짧은 동차 기간동안 쉽지 않은 만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크게크게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저작권법】 60점/ 17p 작성

저작권법의 경우 월비스 김선화 변리사님의 커리큘럼을 거의 모두 따랐습니다. 신규 강사님을 선택한 이유로는 1. 최근 합격하셔서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2. 소형 강의로 강사 직접 첨삭이 가능하여 특상에 활용할 수 있는 답안지학을 배울 수 있다 정도였습니다.

4월 기초 GS 수강 후 5월 기본 강의, 6월 실전 GS, 7월 최종정리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김선화 변리사님 강의의 경우 강사님의 설명이 너무 명확하고 설명이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답안지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강사님 답안 스타일을 최대한 모방하고자 했습니다. 답안지 첨삭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서 정말 초등학교생 같은 답안지가 한층 법학 답안지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전화 암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대부분 내용이 조문이고 외워야하는 판례가 굉장히 적어 책임기 스터디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회독할 수 있었습니다.

7월 초반 2주는 민특상 정리에 치여 저작권법에 손도 못 대고 있다가, 2주차 주말에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한 후 2주동안 최종정리 강의 자료와 GS만 회독했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 자료에서 조문 부분은 전혀 읽지 않고 외워야할 판례만 외우고, 실전GS와 강사님 모의고사 답안 중 최신 판례 관련 문제와 판례 문구를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조문을 제외하고 나면 분량이 정말 적어, 집에서 스터디카페까지 왔다갔다 걷는 시간에만 읽어도 충분히 회독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변리사님의 실전 GS와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어 마지막날 2교시에 힘든 체력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고, 패스하기에 부족함 없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스터디】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차 때는 생활 스터디, 진도 체크 스터디, 10개년 기출 풀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차 막판에 매주 토요일에 모여 10개년 기출을 시간에 맞춰 10개년 기출 및 모의고사 2회를 풀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시간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2차의 경우 민소, 특허, 상표, 저작권 암기 스터디를 진행하고 민소 사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스터디원 분 중 실력자이신 분에게 거의 전과목 과외를 받았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 하고 단순 암기 했던 부분을 콕 집어 설명해주셔서 민, 특, 상 전체적인 이해도가 상승했습니다.

【특강】

2차 동차 기간 동안 여러 특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나지에 변리사님 민사소송법 병합 특강, 정혜진 변리사님 상표 5개년 특강, 최지환 변리사님 Level-up 강의를 수강했는데 각 강의 모두 개념 정리 및 답안지 작성 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나지에 변리사님의 병합소송 특강의 경우 스터디원 분의 추천을 받아 수강했습니다. 병합 소송에서의 자잘한 부분들이 헷갈렸었는데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민소 3번 문제의 경우 병합소송에서 설명해주셨던 부분이 나와 답안 작성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정혜진 변리사님 판례특강의 경우 강의자료가 정말 좋고, 답안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판례를 정리해주셔서 마지막까지 해당 자료를 회독했습니다. 강의의 경우 추후에 기득이 된다면 변리사님 GS를 수강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의력이 좋아 판례가 쑥쑥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지환 변리사님 강의의 경우 특강이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상표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침해 파트 등의 전형화된 목차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동차기간 동안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공부하기 싫은 날 또는 쉬는 날에 위와 같은 특강 활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답안지 작성】

저는 기초 GS 첫 주차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GS에서 책을 보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등장하기에 기존의 배경지식으로 최대한 답안 작성을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을 떼고 적는 게 처음에 굉장히 힘드나(정말 많이 힘듭니다), 나름 흥미로운 소설을 쓴다 생각하면 그런대로 답안 작성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

7월부터는 도저히 동차 합격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멘탈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암기 정밀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정리된 과목이 하나도 없고 그동안 뭘 했을까라는 자괴감이 가득했던 7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동차 시기에 마지막 정리를 잘해놔야 기득으로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과 어차피 한 번 주어진 기회인 거 하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껏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비교적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했고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에 마지막까지 공부를 끌고 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특허를 보고 멘탈이 정말 나갔으나, 내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4-3번까지만 최대한 답안을 마무리하자 라는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최대한 조문을 병기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특허에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모르는 문제가 보통 나올 경우 배점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4-3번의 경우 3점이었는데 '잘 쓰면 2점, 못 쓰면 1점이다. 이 1점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으로 멘탈을 잡고 모르는 문제는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하고 했습니다.

【모의고사】

저는 6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7월까지 거의 매주 GS를 작성했습니다. 7월에만 모의고사를 총 3번 풀었는데 마지막 정리 시간이 조금 줄더라도 기껏 잡은 문제풀이 감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 매주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6월 마지막 GS 이후 실제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답안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험 1,2주 전에 1-2회 모의고사를 보고 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수험 생활 중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완고한 반대에도 무작정 퇴사하고 공부를 시작한 큰아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두 분의 응원 덕분에 짧은 기간 내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에서 백수가 된 형 투덜대면서도 끝까지 응원해준 동생 준호와 제수씨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제 본가에 모였을 때 생색은 많이 내지만 배달 음식 잘 시켜주는 큰 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변리사가 원지도 모르지만 그냥 응원해준 막내 동생 초록이한테 감사인사 드립니다. 더불어, 많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친척 분들 모두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단순히 뒤늦게 변리사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응원해줬던 선배 변리사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동차 합격해서 본인의 모든 합격 노하우를 전해준 서기현 변리사님과 먼저 수험생을 겪으면서 했던 고민들에 대하여 현실적인 조언과 답안지를 봐주며 답안지 작성에 대한 많은 팁을 주었던 이수민 변리사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뒤늦게 공부 시작하는 과 후배, 동기, 선배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주셨던 김용범, 김효준, 김새미, 유지연 변리사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많은 지인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신촌까지 놀러와 함께 밥 먹고 응원해준 정민, 승환이를 비롯한 고등학교 친구들과 언제나 전화해도 편하게 받아주었던 찬우, 태희, 제도, 석원이형, 정우형, 수혁이형, 준호형, 성호형, 도엽이형, 소담누나를 비롯한 과사람들, 퇴사한 사람 잊지 않고 모일 때마다 연락 준 창원, 예진, 현진 누님, 호성 형님 및 신촌까지 찾아와 만나주었던 재경이, 묵묵히 응원해주고 밥사준다고 한 인욱이형 등을 비롯한 하이닉스 동기 동료들 감사합니다. 매번 티격태격 하지만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던 준서, 경준, 영우, 하영, 연주 등을 비롯한 기수단 동기들과 성진이형, 창우형, 학천이형, 지연누님 등을 기수단 선후배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만날 때마다 아낌 없이 응원해주었던 성원이, 진우, 지수, 상혁이형, 동수 등을 비롯한 대자격 사람들과 같이 고생하며 밥 먹고 가끔씩 떠들어제졌던 유정, 재호, 승원, 채원, 도희 등을 비롯한 희원대 도개, 담양, 지인들 및 도서관에서 만나며 반갑게 인사 나눴던 경호를 비롯한 태권도부 선후배분들 감사합니다. 늘 먼저 연락해주고 가장 많이 놀려와서 밥 사주고 응원해줬던 승환이와 매번 연락하고 응원해주었던 상욱이를 비롯한 지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터디를 통해 만났던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꼭 자기 얘기 2줄 이상 써달라고 신신당부 했던, 1차 생활스터디부터 탈주와 합류를 반복하다 2차 동차 기간까지 함께 보낸 윤구와 마지막 1차 공부 쓸쓸한 시기에 같이 밥 먹고 공부하며 막판 스퍼트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던 혜진, 동주에게 감사합니다. 1차 초반 생활스터디와 기출문제스터디까지 함께 했던 주희님, 기출 문제 스터디 이후에도 동차 기간 수업에서 마주칠

때마다 응원해주고 내년 62기로 반드시 합격할 주영, 찬희, 한준에게도 감사합니다. 지인의 지인으로 만나 편하게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던 진규, 현지와 스터디 함께 하며 동고동락하고 같이 합격한 정민호, 임하영 변리사님, 특히, 전과목 과외를 해주며 동차 합격의 길을 이끌어준 정민호 변리사님께 특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같이 스터디하며 동고동락하고, 내년 62기로 무조건 합격할 명백 형님, 건우 형님, 예원, 다운님, 혜리님, 지혜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동차 시험 후 멘탈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합격할 수 있을거라고 응원해주었던 한빛 종합반 16기 분들 모두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내년 종합반 합격률 100% 달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 기간 내내 옆을 지켜주며, 공부 갈피를 못 잡을 때 옆에서 조언해주고 멘탈이 안 좋을 때는 옆에서 잘 달래주고 묵묵히 응원해주었던, 누구보다 마음고생 심했을 지원이에게 가장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 외에도 강의를 들었던 모든 강사님들과 미처 언급하지 못 한 지인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리며 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